

박수훈

(사)민간발전협회 상근부회장

[학력]

1966 경북고등학교
1971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주요경력]

1972 행정고시 12회
1978 ~ 200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장, 광업정책과장,
해외자원과장 중국상무관, 자원정책과장, 전력국장
2002 ~ 2005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이사장
2005 ~ 2008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現 (사)민간발전협회 상근부회장

Power Interview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의 생각과 바람을 마음속에만 두지 않고 끊임없이 실천에 옮겼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기인으로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민간발전협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박수훈 부회장을 만나 민간발전협회의 현안과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민간발전협회는 민간발전사업과 관련한 사업체의 상호간 유대 강화와 협력, 신기술의 정보 교류와 연구개발을 통하여 민간발전사업의 진흥발전을 도모하고, 정부의 발전 산업정책 구현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5월 7일 설립되었다.

민간발전사의 최대현안은 전력정책의 투명성과 연속성을 담보로 한 전력산업구조의 선진화와 천연가스 산업의 경쟁 활성화이다.

박수훈 부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초 2년간 시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 중인 변동비반영 시장(CBP ; Cost-Based Pool)의 선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을 극대화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뜻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력시장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절실하다. 수요 측면에서 효율향상 및 부하관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참여자의 충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공급 측면에서도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한 투자보수가 보장되는 수준의 적정 도매전력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박 부회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GS EPS 당진발전소



SK E&S 광양발전소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인식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실천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통해서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부문의 경쟁강화를 위해서는 KEPCO발전회사의 독립 공기업화 등을 추진하고, 민간발전 활성화를 통해 연료도입에서 발전운영까지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 박 부회장은 “한전의 판매독점을 개방하여 기존 사업자를 포함한 신규 판매사업자의 소매시장 진출 허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값 비싼 2차 에너지인 전력을 절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에너지 소비 절약이 가장 중요하다. 박 부회장은 “비싼 침두발전기의 1차 에너지원인 LNG 도입 경쟁을 촉진시켜 전기요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비를 절감함으로써 전력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스산업구조개편 역시 동시에 이루어지면 그 효용은 더욱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더불어 도입한 LNG의 재판매까지 가능하다면 일본의 경우처럼 LNG에 대한 구매력(Buying Power)이 향상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도입의 유인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일환으로 민간 기업에게 개방된 전력산업은 현재 점유율은 16%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순수 민간발전사의 점유율이 10%를 상회하는 시점에서 민간사는 대부분 침두발전을 담당하고 있어 설비 운용의 탄력성이 떨어진다. 이에 대하여 박 부회장은 “원자력이나 석탄화력 등 기저발전의 건설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폭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침두발전의 가동률이 급등함으로써 민간발전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라고 밝혔으며, “금번 제6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 등 기저발전이 대거 진입함에 따라 향후 전력시장에서 침두발전의 가동률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2001년 결정된 발전기의 용량요금(Capacity Payment)이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됨으로써 물가상승률 조차 반영되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Power Interview

또한 민간발전사는 공기업 발전사와 달리 투자 리스크를 전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특성상, 운영 효율 개선에 대한 강한 유인이 존재하여 KEPCO발전회사에 비해 높은 효율성을 보여 왔다. 박 부회장은 “우리 협회는 향후 LNG 직도입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발전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회원 사들과 함께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는 뜻을 밝혔다.

국내 발전 산업에 대해 민간사 역시 조만간 포화상태에 다다를 것이라 판단하고, 해외진출에 대한 방안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부생가스 및 석탄화력 발전 사업을, 미국 네바다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여 건설 중에 있으며, GS EPS의 경우 중국 상해에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준공,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각 민간사는 해외발전 사업 부서를 운영하며, 중동,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에 발전 사업을 제안, 추진 중에 있다. “대부분 국내에서 축적한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하여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 그 시공 및 운영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대다수가 저개발 국가이다 보니 자본이 취약하여 외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관계로 국내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박 부회장은 설명했다.

민간발전사는 최근 10년 동안 8조 원 가량의 투자로 국내 전력설비 15%, 전력생산 10%를 담당하고 있으며, 부족한 국내 전력수요는 청정에너지인 LNG를 이용한 복합발전으로 충당해 왔다. 이에 따라 전력수급 안정화는 물론 저렴한 LNG 연료의 구입으로 전력 시장의 거래단가를 낮추어 국민부담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다. 박 부회장은 “최근 언론사에서 민간발전사의 과다수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소 편향된 보도로 인해 우리 민간발전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언론사 광고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해 우리나라 전력산업에서 민간발전이 차지하는 위상에 걸 맞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임직원 봉사활동 등 에너지 복지 구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다.

박수훈 부회장은 항상 마음속에 담고 되새기는 말이 있다고 한다. 바로 ‘감속다실’이다. 어려운 한자성어는 아니고 ‘감’사하고 ‘속’죄하고 ‘다’짐하고 ‘실’천하자는 말의 첫 자를 딴 말이다. 박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첫째, 주위 사람 또는 내 주변의 사소한 것일지라도 당연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말고 항상 감사하게 여기면 고유의 가치를 발견하게 마련이고, 그것으로 인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둘째, 우리는 살면서 의도적으로 때로는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살아간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자. 셋째, 어떤 일을 하든지 처음의 자세와 의지는 퇴색되고 편하게 안주하려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 아닌가 싶다. 그러기에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고 새로운 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는 본인의 인생철학이자 경영방침을 밝혔다. 